

병자를 고치신 사랑의 주

요한복음 5:1~18

【인도자를 위한 예화】

‘투자의 귀재’라는 칭호를 받는 유명한 투자자이자 기업인 워렌 버핏(Warren Edward Buffet)이 있습니다. 11살 때 주식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시작하여 10대 후반에는 교사들보다 많은 월수입을 올렸으며, 35살에 이미 백만장자의 반열에 들어선 인물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기부와 투명 경영 그리고 부에 걸맞은 품격을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습니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점 중 하나는 그와의 식사 한 번을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연례행사인 점심식사 자리 경매가 있는데 2022년의 경우 낙찰가가 한국 화폐로 따지면 무려 246억 원이었습니다. 매우 큰 비용이지만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만나 보려고 하는 까닭은 대화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와 아이디어가 상당한 가치가 있어, 더 큰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에 사람들은 통찰을 주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려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도 하고 다른 측면으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나요?

【배경 이해하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의 지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정서적 문제를 짚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본문은 38년 동안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던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지적인 갈망을 채워 주시는 분이고(3장), 정서적인 갈증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며(4장), 육체적인 아픔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5장). 38년 된 병자에게는 거룩에 관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5:14). 38년 된 병자가 있던 베데스다 못가의 양문(Sheep Gate)은 여덟 개의 성문 중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베냐민 문(렘 37:13)으로도 불립니다. 양문은 무너졌다가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되었으며(느 3:1), 양들이 출입하는 문으로서 목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들을 목욕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양문 곁에 있던 비천한 병자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며 영적인 교훈까지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은 무엇인가요?(6, 8, 14절)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낮고 싶으냐?’,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오순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시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심히 곤고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8절)라고 하신 것을 볼 때 그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금홀의 집) 못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 건네신 말은 “네가 낮고자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병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는지, 못에다가 넣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신세한탄을 하면서 못에 넣어 달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붙잡히 여기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치유되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적용과 나눔 I

내가 초라한 처지에 있거나 연약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38년 동안 아팠다는 사실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갖고 베데스다 연못 부근에 있었을 것입니다. 낫고 싶어도 연못에 먼저 다가가지 못해 낫지 못하기를 반복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건네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희망도 거의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초라해진 병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낫게 해주십니다. 사람의 의지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의 삶에 예수님은 치료의 광선(말 4:2)을 발하여 주사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관찰과 묵상 II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무슨 날이었으며,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나요?(9~10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었기에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레 23:3; 렘 17:21~22). 안식일에는 일체의 노동이 금지되었고, 여기에 병 고치는 사역,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행위 역시 노동에 해당되기에 금지되었습니다(느 13:19; 렘 17:21). 하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 12:11~12).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 필요했던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인 안식법보다 아브라함의 언약인 할례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법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함을 몸소 보이셨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끄집어내시며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마 5:17).

적용과 나눔 II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될 것을 아시고도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활동을 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18절).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지키시지 않아 유대인들의 공격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9:22).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박해받는 일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아픔을 붙잡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